

한국 전통사찰 경내 식재실태 및 식재정비방안 연구*

이선희 · 진혜영 · 이현채 · 문애라 · 최우경 · 송유진 · 송정화

국립수목원 전시교육과

A Study on the Current Planting Status and Maintenance Plans of Traditional Korean Temples

Lee, Seonhee · Jin, Hyeyoung · Lee, Hyun-Chae · Moon, Ae-ra · Choi, Woo-Kyung ·

Song, Yu-jin · Song, Jeong Hwa

Gardens and Education Division, Korea National Arboretum

ABSTRACT

Korean temple gardens have very high preservation value as the place reflecting ancestral wisdom in harmony with nature. Not only as a religious place but also as a beautiful landscape place, many people including foreigners are visiting traditional Korean temples. However, current many Korean temple gardens lost their original value and meaning because of the inappropriate planting in traditional places. In this study, for maintaining the representativeness of traditional Korean temple, we researched the current planting status of traditional Korean temple. After the research of 51 traditional Korean temples, a total of 207 species of plants was investigated, and among them 128 species (61.84%) were Korean native plants, 76 species (36.71%) were cultivar plants, 2 species (0.97%) were naturalized plants, and 1 species (0.48%) is introduced plant. Korean red pine (46 temples), sawleaf zelkova (38 temples), and ginkgo (36 temples) were the high rank species among 207 species. Korean rare plants including black-fruit hackberry and Korean fir form 5.3% of total species, and Korean endemic plants including Korean weigela and Korean paulownia form 3.4% of total species in traditional Korean temples. On the other hand, plants that have religious meaning such as lotus, musa, and guelder rose form slightly. There is a higher proportion of traditional Korean plants than religious meaning plants in traditional temple gardens, so that temple gardens are highlighted as historic places. Based on the planting status, maintenance plans were established reflecting characteristics of each spaces: entry space, the precincts of a shrine, and flower stairs. As a result, we suggest that selecting a suitable plant species with regard to the religious meaning of the plant symbolism for newly designing Korean temple gardens.

Key words: Korean temple gardens, Designing garden, Landscape plan, Maintenance plan

국문초록

한국의 사찰정원은 자연과의 조화로운 삶을 추구하는 조상들의 지혜가 반영되어 있는 전통정원 중의 하나로, 전통사찰은 종교적 공간으로도 그 가치가 높지만 지리적 이점으로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입지해 있기 때문에 종교적 공간으로써 사찰뿐만 아니라 경관감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 많은 사찰정원은 전통적 공간과 어울리지 않는 식물들의 무분별한 식재로 전통적 공간으로써 본래의 가치와 의미를 잃어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사찰이 세계화에 앞서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전통사찰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찰 경내 식재현황을 조사하였다. 식재현황 조사 결과, 사찰에 식재된 식물은 총 207종으로 그 중 자생식물은 128종(61.84%), 재배식물은 76종(36.71%), 귀화식물은 2종(0.97%), 도입식물은 1종(0.48)으로 자생식물의 식재비율이 가장 높았으며, 전국 사찰에 가장 많이 식재된 상위 3종으로는 소나무(46개소), 느티나무(38개소), 은행나무(36개소)

* 본 연구는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수목원에 적용 가능한 한국 전통정원 조성에 관한 연구 2'(과제번호:KNA1-2-19,13-5) 결과의 일부로 작성되었습니다.

† **Corresponding Author** : Song, Jeong Hwa, Gardens and Education Division, Korea National Arboretum, Pocheon 11186, South Korea, Tel.: +82-31-540-2052, E-mail: jhssong@korea.kr

였다. 희귀식물로는 검쟁나무, 구상나무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전체식물 중 5.3%에 해당되며, 한국의 특산식물로는 병꽃나무, 오동나무 등이 조사되었으며 이는 3.4%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연꽃, 파초, 불두화와 같이 불교와 관련이 있는 수종의 비율은 적었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전통 사찰정원에는 불교적 의미가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 의미를 가지는 식물의 식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사적인 공간으로써의 특징이 더 크게 보였다. 위와 같은 식재현황을 바탕으로 사찰정원의 의미와 특징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찰의 진입로 영역, 경내 마당, 배경림과의 경계 및 화계 등 사찰 내부공간의 성격에 따라 식재 정비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본 연구를 통해, 새로운 한국사찰정원을 조성함에 있어 종교적,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등 상징성 있는 식물의 식재 및 장소에 알맞은 수종을 식재할 것을 제안한다.

주제어: 한국사찰정원, 정원 조성, 조경 계획, 정비 방안

1. 서론

1. 연구배경 및 목적

불교는 숲과 밀접한 종교이다. 부처가 탄생하여 열반에 이르기까지 나무와 숲은 부처가 설법을 하고 수행을 하는 장소였다. 또한 그의 제자들 역시 숲에서 깨달음을 얻고 번뇌를 깨우쳤다. 불교경전에도 숲에 대한 표현이 나타나는데 '화엄경'에는 시냇물이 흐르는 울창한 숲을 강조하며, '법화경'에서는 극락이 수풀로 우거진 동산이라고 묘사하고 있다[1]. 이는 불교라는 종교에서 숲이 차지하는 의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항으로 고승들의 설법과 오래된 법경에서도 불교와 숲 사이의 불가분한 관계를 알 수 있다.

사찰림(寺刹林)은 사찰 경내 풍치를 보존하고 사찰 운영에 필요한 재원과 물자를 조달하기 위해 사찰이 소유하고 있는 산림이며[2], 전체면적은 우리나라 면적의 0.7%인 6만 3천 헥타르로[3] 우리나라의 사찰림이 생태계 보존에 미치는 영향은 막대하다고 할 수 있겠다. 또한 사찰림은 시대적 상황과 문화적 배경에 의해 독특한 방식으로 발전되고 계승되었는데 한 예로 불교 친화적이었던 통일신라시기와 고려시대에는 사찰 주변에 숲을 조성하고 토착신앙을 포용하였다. 송유역불이 펼쳐지던 조선시대에는 왕실은 불교를 억압하는 한편 사찰과 왕릉 주변의 산림에 대한 관리의 중책을 맡겼다[4].

지금까지 역사 문화재로서 사찰 전각 등의 건축물은 문화재 지정 등을 통해 관리되어 오고 있으나, 그에 반해 식재된 식물의 보존과 관리는 경시되어 온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 역사경관 보전의 측면에서 보면, 사찰에서의 식재는 사찰의 경관을 자연친화적으로 바꾸어주는 데 결정적 작용을 한다. 그 중에서도 주변 자연환경의 질서에 순응할 수 있는 지형경관의 창출, 주변을 흐르고 있는 물을 자연스럽게 도입한 수경관의 조성 그리고 사찰 주변에 자생하는 식물재료를 무리 없이 사용한 식재경관의 조성 등은 그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5].

이처럼 사찰정원 조성 시 식물을 이용한 식재경관의 조성은 딱딱한 이미지만을 나타낼 수 있는 건축경관에 부드러운 식물의 도입으로 이미지를 순화시켜 주며 주변 경관과의 일체감을 부여해주는 역할을 한다[5]. 또한 사찰이라는 종교적 공간에 맞는 식물을 식재함으로써 불교적 의미를 강화시키기도 하고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식물을 이용해 차폐하기도 하였다[4]. 이처럼 사찰에서는 식물을 다양한 용도로 이용하며 사찰에서만 느낄 수 있는 사찰정원을 일구어 냈다. 하지만 일제 강점기와 서구화에 따른 외래종 도입으로 오늘날 사찰에는 자생종, 외래종이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사찰정원만이 지니는 전통성을 느끼기 어렵다[5][6].

선행 연구를 보면, 역사 사적 및 관광지 100개소 조사 결과, 총 280종 중 외래수종이 112종으로 전체 수종의 40%를 차지하여, 국가적 또는 지역적인 특성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어[7], 많은 사적지에서의 전통경관 보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외래수종이 사찰 정원 내 식재되게 된 경위는 첫째, 일제 잔재의 흔적으로, 일본이 일본 원산의 식물을 도입하여 일본사찰의 흉내를 낸 것이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의 한국적 경관성을 소멸시킨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5]. 둘째는 경관의 개선을 위해 도입한 것으로, 금송 등이 이에 해당된다[8]. 야생 생태계에서는 대체로 생태계가 훼손된 다음에 외래종이 들어오고, 자연상태로 안정되어가면서 대부분 다른 종으로 천이되며, 이 과정에서 오히려 생태계의 자연적인 복원이 촉진되기도 하나[9], 사찰과 같은 사적 공간에서는 생태계의 자연적인 천이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전통 사찰 정원의 수종 선정과 수목정비에 대해서는 인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리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사찰이 세계화에 앞서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현 시점에서 전통 사찰 정원에서의 식재 실태 및 식재정비 방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전국 전통사찰 51개소를 대상으로 식재현황을 파악하고자 현장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이를 토대로 사찰정원에서의 식재 수종의 개선 등과 같은 식재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이론적 고찰

1. 기록에서의 사찰 식재 양상

현재 우리나라 사찰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은 오래 전 불경의 전래와 함께 들여와졌거나, 혹은 전통 공간으로서 선조들의 생활 속에서 무뎠히 식재되기도 하였다. 사찰 식물에 대한 기록은 크게 불교 경전 속에 나타나는 식물과 삼국유사 등과 같은 우리나라 고문헌에 나타나는 식물에 대한 기록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중에서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식물은 불교의 기원을 두는 인도에서 나타나는 식물로 상당수는 우리나라에서는 자랄 수 없는 열대성 식물도 많이 있다. 따라서 불교 경전에 나타나는 식물 보다는 우리나라 고문헌에 나타나는 식물에 대한 기록을 면밀히 살펴보고 우리나라 전통성을 반영한 사찰 정원의 식재 방향을 잡아가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 대한 기록은 삼국유사에서 시작된다. 삼국유사에는 사찰 관련 식물에 대한 기록을 여러 곳에서 전하고 있다.

後有元曉法師 又行至橋下 一女洗月水帛 師乞水 女酌其穢水獻之 師覆棄之 更酌川水而飲之 時野中松上 有一青鳥 呼曰 休醜翻和尚 忽隱不現 其松下有一隻脫鞋 師既到寺 觀音座下 又有前所見脫鞋一隻 方知前所遇聖女乃眞身也 故時人謂之觀音松 師欲入聖窟 更觀眞容 風浪大作 不得入而去

원효법사가 낙산사로 향하던 중, 다리 밑에 이르자 한 여인이 월경 수건을 빨고 있었다. 법사가 물을 달라고 청하자 여인을 그 더러운 물을 떠서 버렸다. 법사는 그 물을 얼질러버리고 다시 냇물을 떠서 마셨다. 이때 들 가운데 서 있는 소나무 위에서 파랑새 한 마리가 말하였다.

“불성을 깨닫지 못한 중!”

그리고는 홀연히 숨어서 보이지 않았고, 다만 그 소나무 아래에 신발 한 짝이 떨어져 있었다. 법사가 절에 이르러보니 관음보살상의 자리 밑에 또 아까 보았던 신발 한 짝이 있었다. 그래서야 원효법사는 전에 만났던 여자가 관음의 진신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소나무를 관음송(觀音松)이라고 하였다. 법사가 신성한 굴로 들어가 다시 관음의 진신을 보려고 하였지만 풍량이 크게 일어나 들어가지 못하고 떠났다.

- 삼국유사 제3권 탑상 제4 「낙산의 관음·정취 두 보살과 조신」

먼저, 소나무와 관련된 기록을 살펴보면, 소나무는 승려들의 생활 곳곳에서 중요한 지점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소나무를 활용하여 사찰을 짓는 등 불사에 사용되기도 하였던 것으로

보여[10], 소나무는 사찰 주변에 많이 식재되어 있었던 것으로 판단된다(Figure 1, 2).



Figure 1. Gwanemsong in Naksan-sa temple



Figure 2. 「Naksan-sa do」by Kim Hong Do

太平興國七年壬午 有釋成梵 始來住寺 敞萬日彌陀道場 精懃五十餘年 屢有殊祥 時玄風信士二十餘人歲結社 拾香木納寺 每入山採香 劈析淘洗 攤置箔上 其木至夜放光如燭 由是郡人項施其香徒 以得光之歲爲賀

태평흥국(太平興國) 7년 임오에 중 성범(成梵)이 처음으로 도성암(道成巖)에 와서 살았다. 그는 만일미라도량을 열어 부지런히 50여 년을 전념했는데 특별히 상서로운 일이 여러 번 있었다. 이때 현풍(玄風)의 신도 20여 명이 결사(結社)를 만들고 해마다 향나무를 주워다 절에 바쳤다. 매년 산에 가서 향나무를 채취하다가 쪼개고 씻어서 발 위에 펼쳐두었는데, 그 향나무가 밤이 되면 촛불처럼 빛을 발하였다. 이런 이유로 고을 사람들은 그 향을 바친 무리들에게 보시하고 빛을 얻는 해라며 축하하였다

- 삼국유사 제5권 피은 제8 「포산의 두 성사」

향나무는 이와 같이 사찰 주변에 심겨 제향을 위해 신도들이 채취하여 사찰에 바치는 등의 기록이 전해진다. 이는 사찰 주변의 많은 노거수들 중에 향나무가 많은 이유이며, 이러한 의미에서 경내에서도 많이 식재하기도 하였다. 그 외에도 조선왕조실록에서도 사찰 관련 식물에 대한 기록을 아래와 같이 전하고 있다.

原春道觀察使徐鼎修狀啓言：“國初襄陽洛山寺，有生梨，甘藿之納於明禮宮，而梨樹，藿田，今無所存，遠貿充納，緇徒莫能支吾。請蠲減。”從之

원춘도 관찰사(原春道觀察使) 서정수의 장계에 이르기를, “국초(國初) 양양(襄陽)의 낙산사(洛山寺)에서 배와 미역을 명례

궁(明禮宮)에 바치는 일이 있었으나 배나무와 미역밭이 지금 남아 있는 것이 없고 먼곳에서 교역(交易)하여 바치므로 승도(僧徒)들이 지탱해 나갈 수 없습니다. 청컨대, 감면해 주소서.”

하니, 그대로 따랐다.

- 조선왕조실록 정조 20권 9년(1785) 6월 21일

배나무와 같은 과실수에 대한 기록도 남아있는데, 배와 같은 과실수나 은행나무 등은 궁납을 위해 식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에도 많은 과실수를 경내에 흔하게 심어 승려들의 식용 등을 위해 식재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경내 수목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도는 과실의 이용, 관상 수종, 녹음수의 이용, 건물과의 조화 순서로 나타났다는 연구 결과와도 일맥상통한다[10]. 이로 보아 경내 공간에서는 전통 정원에서 안마당과 같은 의미로 과실수 등을 식재하여 실용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2. 관련 연구동향

불교 식물에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각 식물의 외형적 형질이나 생리적 특성을 불교적 의미와 연계하여 고찰한 경우가 많았다. 먼저 불두화는 무성화인 꽃이 부처의 머리모양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으로 부처님께 꽃 공양을 한 식물이라고 하여 불교적 의미가 강한 식물로 여겨진다[11]. 수국은 종교적 의미가 큰 식물인데, 석가탄신일에 수국차를 석가상에 붓는 풍습이 있는데 이는 부처가 태어났을 때 수국차로 몸을 씻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된 것이다[12]. 파초는 줄기가 비어 있기 때문에 인간의 텅없는 삶을 비유하기도 하며[13] 인간사의 무상을 환기시키는 탈속적 의미와 믿음의 구법을 염원하는 의미와 텅없는 인간사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탄속의 상징물인 동시에 불심 구도의 자세를 상징하는[14] 불교적 의미가 있는 식물이다. 불교의 공 사상을 상징하는 파초의 식재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총 940개의 사찰 중 40개의 사찰에서 파초가 식재되었으나, 스님들이 파초에 대해 모르는 경우가 많거나, 관리가 소홀하여 파초가 없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경내에 심겨진 파초의 상징성은 무아 또는 공의 의미, ‘혜가단비도’(Figur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믿음의 구법을 염원하는 상징적 의미, 욕망을 경계하는 의미에서 심겨지고 있었다[13]. 배롱나무는 사찰에 많이 식재되었는데[15], 이는 연등회와 같은 국가적 종교행사가 많이 행해졌기 때문에[16] 사찰 경관 증진을 위해 식재된 것으로 보인다. 열매를 이용하여 염주를 생산하는 찰피나무, 꽃잎이 희고 현세의 향기가 아닌 극락의 향기라는 치자나무, 더러운 진흙 속에서 청아한 꽃을 피우고 모든 행사에서 이용되는 연꽃 등도 불교를 상징하는 식물이라 볼 수 있다[17]. 그 외 향나무(청정), 자귀나무(있을 향으로

사용), 배나무(삼국유사 기재), 살구나무(삼국유사 기재), 산수유(삼국유사 기재), 밤나무(삼국유사 기재), 가래나무(염주), 호두나무(염주), 멸구슬나무(염주), 무환자나무(염주), 모감주나무(염주), 골담초(삼목설화), 버드나무(삼국유사), 붓순나무(가지를 불전에 올림), 비자나무(염주), 음나무(발우식기 재료), 전나무(창건 기념식수) 등이 불교와 관련된 식물이다[18]. 월정사, 내소사 등 사찰에서 전나무가 주로 진입공간에 식재되어 있는데 이는 이상세계로의 진입을 알리는 하나의 표징적 역할과 곧은 수형이 수행자의 흐트러짐이 없는 모습을 나타내기에 사찰의 진입부에 식재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고 있으며, 사찰의 목조건축물의 활주의 재료로 전나무가 사용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전나무는 인위적 식재를 통한 활용의 목적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19, 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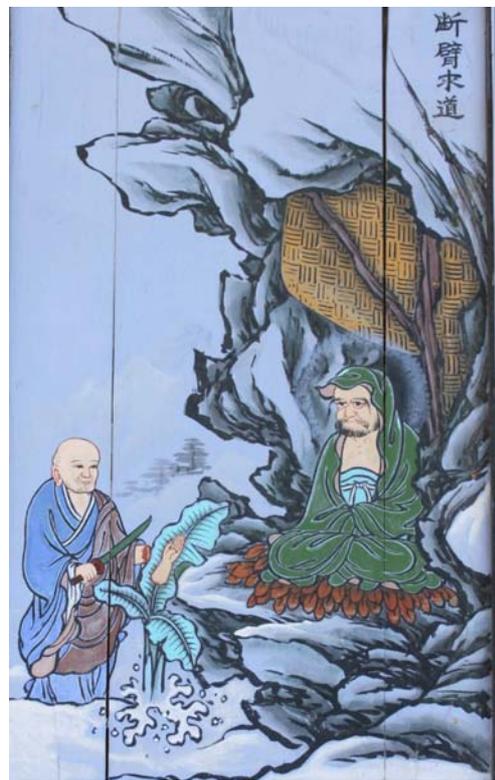


Figure 3. 「Hyegadanbi do」at Dawunjeon Hall in the Songkwang-sa temple

오래된 역사를 가지는 사찰 주변에는 노거수가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들은 우리나라 산림을 보호, 유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기에 노거수들은 천연기념물 등으로 지정되기도 하였다. 이처럼 사찰의 진입부와 사찰주변은 나름대로의 기능과 요구에 따라 식재경관이 형성되어 왔으며, 경내의 공간에서는 연지 축조, 연과 창포 식재, 소나무, 잣나무, 전나무 등의 수목 식재, 화계에 모란, 작약 등을 심었다는 기록으로 미

루어 사찰 내 조경행위가 이루어졌음을 유추할 수 있다[5]. 해인사에 식재된 모란의 경우는 화계의 1단 이상으로 조성된 계단상의 단으로 지형처리와 식재를 위한 공간이며[21], 꽃이 아름다운 식물종을 사용한 우리나라 전통경관식재의 대표적인 형태이다.

특히 경내 공간은 종교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식물의 도입이 절제되어 있으며, 녹음과 계절감을 감상하기 위해서 상록수보다 낙엽수를 선호했고, 통풍과 채광을 고려하여 밀식보다는 점적 요소로서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다[22]. 또한 경내 수목에 대한 스님들의 관심도는 과실의 이용, 관상 수종, 녹음 수의 이용, 건물과의 조화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11].

우리나라 사찰을 대상으로 식재 식물종과 식재특성을 분석한 관련 연구들을 살펴보면, You[6]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삼보사찰인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에 식재되어 있는 식물종과 식재특성을 분석하였으며, Heo[5]는 경주의 주요사찰 4곳인 불국사, 분황사, 기림사, 골굴사의 조경수 식재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는데 식재식물 및 외래종을 조사하고 병충해에 대한 관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병충해 조사도 함께 이루어졌다. 경상지역뿐만 아니라 전라지역 사찰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Beak[23]은 화엄사, 송광사, 선암사, 대흥사의 식재수종을 조사하고 사찰의 공간별 주요 식재 수종을 분류하였다. 지형특색에 따른 연구도 진행되었는데 평지형 사찰인 월정사, 신흥사, 신륵사 및 미타사와 산지형 사찰인 낙산사, 부석사 및 불국사에 식재된 수종 조사와 수목과 사찰간의 연관성을 고찰하고 각 사찰에서 수목 식재시 활용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였다[17]. 단순히 식물 식재상 조사연구 뿐만 아니라 앞으로 관리계획을 위한 기초자료조사도 이루어졌는데 Ha and Kim[18]은 불국사의 식물상과 발전과정의 재조명과 더불어 식재경관의 정체성을 관리계획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시하였고, Hong[19]은 해인사에 식재된 식물종과 그에 따른 문제를 진단하고 분석하여 지속가능한 관리 및 유지를 위한 기초 자료를 제시하였다.

선행연구를 살펴본 결과, 오늘날 사찰에는 불교적 의미를 지니는 식물 식재와 소나무, 은행나무, 전나무 등의 수목이 식재되어 있었다. 하지만 재래종과 외래종이 무분별하게 식재되어 있었으며 관리 또한 외국의 조경 양식을 이용한 사찰도 있다고 고찰하였다.

3. 문제 제기

1) 사찰 경내 외래수종이 차지하는 비율

우리나라 전통사찰 경내 식재 수종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외래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선암사의 경우, 식재된 식물의 원산지를 기준으로 도입수종이 총 17종으로, 도입된 외래수종은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에 식재된 것

으로 보인다. 일본 원산 수종이 12종(70.6%), 중국산 수종이 2종(11.8%), 기타 3종(17.6%)으로, 카이즈카향나무, 옥향, 편백, 화백, 삼나무, 일본단풍나무, 일본철쭉류, 일본목련 등이 식재되어 있다. 그 외에도 한국사찰의 정서와 맞지 않은 개잎갈나무, 유카 등도 도입되어 있었다[24]. 삼보사찰인 해인사, 통도사, 송광사에 식재된 식물의 자생종에 대한 연구를 보면, 해인사는 20분류군(전체 식재종의 38.5%), 통도사 28분류군(50.9%), 송광사 44분류군(50.0%)으로 나타났으며, 공통적으로 영산홍과 자산홍이 식재되었다[6]. 불갑사 경내 식재 수종을 살펴보면, 25종(전체 수종의 47.2%)이 향토수종으로 다래, 능소화, 으름 등의 덩굴식물 뿐만 아니라 천남성, 골담초, 은행나무, 감나무, 차나무 등의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었다. 외래 수종 중 대표적인 것이 삼나무인데, 일본의 영향으로 식재된 것으로 보여진다[22]. 불국사의 경우, 외래수종은 14종(전체 식재 수종의 18.0%)으로, 스트로브잣나무, 편백, 화백, 아까시나무, 은행양, 버즘나무, 개잎갈나무, 일본목련 등이 식재되었다. 분황사의 경우, 외래수종은 3종(7.7%), 버즘나무, 화백, 철쭉으로 다른 곳에 비해 외래수종이 적게 나타났다. 기림사의 경우 독일가문비 1종이, 골굴사의 경우 개잎갈나무, 아까시나무, 독일가문비 3종이 외래수종으로 나타났다[5]. 월정사, 신흥사, 신륵사, 미타사 4개 사찰에서의 식재 연구를 살펴보면 금송, 카이즈카향나무와 같은 외래수종은 발견되나, 우리나라 전통 사찰에서 많이 식재하는 자생식물인 찰피나무와 같은 수목은 위 4개 사찰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17]. 불국사의 경우 일제시대에 보수가 이루어져 일제시대에 대표적으로 사용된 수종이 경내에 다수 식재되었다. 삼나무, 화백, 편백, 개잎갈나무, 일본목련 등이 이에 해당한다[18]. 그 외에도 버즘나무, 은행양, 실유카, 미루나무 등도 사찰정원에 어울리지 않는 수종으로 여겨진다[18]. 또 하나의 공통 수종은 유카로, 미국 남동부 및 멕시코가 원산지인 열대식물로 백색의 꽃이 관상 가치가 있으나 잎 끝이 날카로워 상처를 입힐 수도 있다[6].

이렇듯 식물 수종의 원산지로 볼 때, 사찰 경내에는 외래종이 식재된 경우가 많았다. 이는 일제강점기 때 많이 식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일본이 한반도를 침략하여 일본문화를 이식하는 과정에서 일본 원산의 식물을 도입하여 일본사찰의 흉내를 낸 것이 우리나라 전통사찰에서의 한국적 경관성을 소멸시킨 결정적인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5]. 또한 Park[25]에 의하면, 주요 사찰에 노거수로 현존하는 전나무 노거수의 현존량과 식재위치 특성, 식재시기 특성, 일본의 고대신앙과 전나무의 연관성을 분석해보았을 때 전나무는 일제강점기 동안 신목(神木)의 의미로 우리나라 주요 사찰에 식재되었다고 한다. 최근에는 서양 원산의 식물까지 경내에 무분별하게 도입되어 전통사찰 고유의 경관 이미지를 더욱 찾아보기 어렵게 되었다.

2) 사찰 경내 수목정비의 한계

사적지에서의 수목 정비는 대부분 향토식물, 토착식물, 귀화식물, 외래식물 등으로 구분하고 외래식물과 귀화식물의 무조건적 제거와 향토식물 및 토착식물의 맹목적 식재를 권장하고 있는데, 이러한 정비방안은 전통정원에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사료의 고증을 통한 수목정비 또한 한계가 있는데, 수목은 시간에 따라 변화하며 사찰에서의 수목에 대한 기록 또한 충분하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따라 사료에 나타나지 않는 공간에 대해 수목의 상징성(예, 선비의 기개를 상징하는 소나무 식재 등)만 가지고 혹은 과거에 애용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무조건적으로 식재하는 것은 전통공간의 고유성 및 역사성을 상실하게 되는 문제점을 야기하게 된다[26]. 또한 같은 수종일지라도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르게 불리고 있어 사료에 기록된 수종명을 그대로 신뢰하는 것 또한 무리가 있다[16].

III. 연구방법

1. 연구 대상지 및 연구범위

본 연구는 고문헌에 언급된 전통사찰 51개소(Appendix 1)를 대상으로 2013년 1월부터 2014년 3월까지 현장조사를 진행하였다. 지역별로 Table 1과 같이 강원도는 낙산사 외 8개소, 부산/경상도는 고운사 외 12개소, 서울/경기도는 보광사 외 14개소, 전라도는 내소사 외 7개소, 충청도는 갑사 외 6개소의 사찰을 답사하였다. 식물은 사찰 경내의 식물로 한정하여 식재수종 및 자생잔존수종을 모두 포함하였는데, 경외의 경우 자연생태이 형성되었거나 나름대로의 기능과 요구에 따라 식재경관이 형성되어 왔으므로 사찰 정원과 관련성이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사찰 경내 경계는 일주문 내부이며, 사찰의 외곽 담장 및 석단을 기준으로 하였다.

2. 조사 및 분석

전통사찰을 직접 답사하고 사진 촬영을 통해 현재의 사찰 정원 모습 및 식물상을 기록하였으며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조사하였다. 식재 수종의 경우 산림청 국립수목원의 국가표준식물 목록을 통해서 국명과 학명을 조사하고 자생식물, 재배식물, 귀화식물, 도입식물로 종을 분류하였다. 대상지에서 확인된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희귀식물은 산림청과 국립수목원[27], 특산식물은 국립수목원[28]에 따라 정리하였다. 또한 사찰정원 조성시 식재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51개소 사찰에 식재되어 있는 귀화식물과 귀화도, 이입시기, 원산지, 생활형을 정리하였다[29]. 귀화율(NR: Naturalization Rate)은 본 조사대상지에서

출현한 총 식물 종수에 대한 귀화식물 총 종수의 비율[30]로 산정하였다. 조사된 자료를 기반으로 국내 사찰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한글 맞춤법 규정에 따라 자모 순서대로 정리하였으며 수종이 식재되어 있는 사찰 정보를 기재하였다.

IV. 결과 및 고찰

1. 전국 51개소 사찰에 식재된 수종

1) 식재 식물

전국 51개소 사찰에 식재되어 있는 수종을 조사한 결과, 총 207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Appendix 2), 국가표준식물 목록에 따라 자생식물, 재배식물, 귀화식물, 도입식물로 종을 분류하였으며 식재되어 있는 총 207종의 식물 중에서 자생식물은 128종(61.84%), 재배식물은 76종(36.71%), 귀화식물은 2종(0.97%), 도입식물 1종(0.48%)으로 자생식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Table 1, Figure 4). 사찰별로는 송광사에 가장 많은 47종이 식재되어 있으며 운문사(43종), 불국사(41종)가 다음으로 많은 식물이 식재되어 있었다(Table 1). 대부분의 사찰에서 자생식물의 비율이 재배식물의 식재비율보다 높았지만 김룡사, 봉정사, 조계사에서는 자생식물과 재배식물의 비율이 같았다. 전국 사찰에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수종은 소나무(46개소), 느티나무(38개소), 은행나무(36개소), 단풍나무(35개소), 향나무(30개소), 배롱나무(29개소), 주목(28개소), 전나무(26개소), 목련(21개소), 뽕나무(20개소), 불두화(20개소) 등 순이었다(Figure 5). 본 연구에서 자생식물종은 128종이 조사되었으며, 소나무(46개소), 느티나무(38개소), 단풍나무(35개소), 향나무(30개소), 주목(28개소), 전나무(26개소), 목련(21개소), 뽕나무(20개소), 감나무(19개소), 갈참나무, 찰피나무(17개소), 왕벚나무, 회양목(15개소), 산철쭉(13개소), 동백나무(12개소) 등 순으로 식재되어 있었다(Figure 6). 76종의 재배식물의 경우에는 은행나무(36개소), 배롱나무(29개소), 불두화(20개소), 매실나무(16개소), 산수유(14개소), 영산홍(13개소), 모과나무(12개소), 오죽(11개소), 파초(10개소), 자목련, 회화나무(9개소), 무궁화, 박태기나무(8개소) 등 순으로 식재되어 있었다(Figure 7). 총 207종의 식물 중 귀화식물은 아까시나무(신록사, 칠장사), 가죽나무(수타사) 2종만 존재하였고, 도입식물로는 진관사의 일본 오엽송 1종이 확인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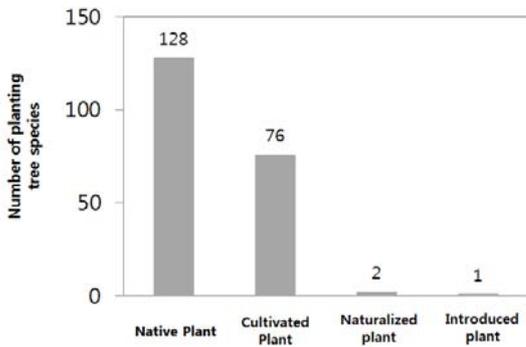


Figure 4. The classified plants of 207 species planted in 51 te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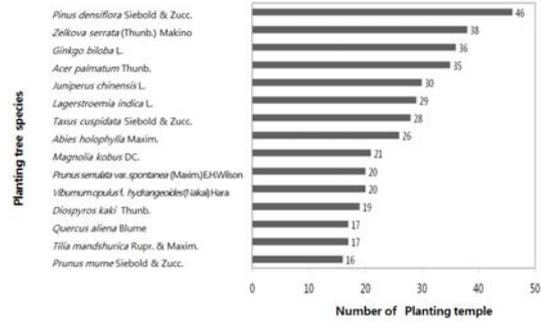


Figure 5. The top of 15 native plants in 51 te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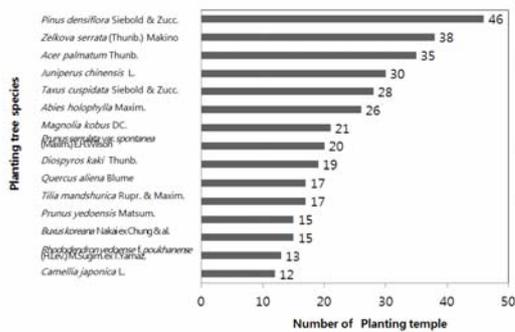


Figure 6. The top of 15 species planted in 51 temple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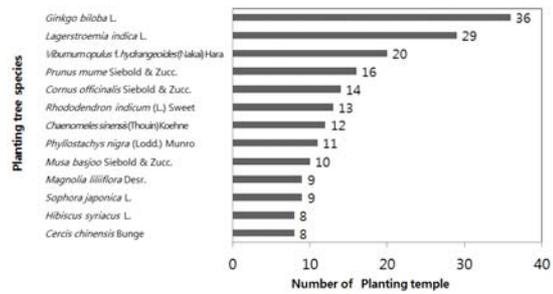


Figure 7. The top of 13 cultivated plants in 51 temples

Table 1. The rate of Planting species as the classified species in 51 temples

Province	Temple name	Whole plants (Species/%)	Native plants (Species/%)	Cultivated plants (Species/%)	Naturalized plants (Species/%)	Introduced plants (Species/%)
Gangwon-do	Naksan-sa	17(100)	12(70.6)	5(29.4)		
	Baekdam-sa	15(100)	13(86.7)	2(13.3)		
	Sangwon-sa	12(100)	10(83.3)	2(16.7)		
	Suta-sa	19(100)	12(63.2)	6(31.6)	1(5.3)	
	Sinheung-sa	16(100)	11(68.8)	5(31.3)		
	Woljeong-sa	16(100)	13(81.3)	3(18.8)		
	Jeongam-sa	15(100)	12(80)	3(20)		
	Cheneun-sa	18(100)	11(61.1)	7(38.9)		
	Cheongpyong-sa	10(100)	8(80)	2(20)		
Busan /Gyeongsang-do	Goun-sa	17(100)	14(82.4)	3(17.6)		
	Kimyong-sa	24(100)	12(50)	12(50)		
	Namjang-sa	20(100)	15(75)	5(25)		
	Beomeo-sa	33(100)	20(60.6)	13(39.4)		
	Bongjong-sa	14(100)	7(50)	7(50)		
	Pusok-sa	25(100)	14(56)	11(44)		
	Bulguk-sa	41(100)	25(61)	16(39)		
	Bulyeong-sa	10(100)	4(40)	6(60)		
	Ssanggye-sa	28(100)	10(35.7)	18(64.3)		
	Unmun-sa	43(100)	25(58.1)	18(41.9)		
	Jikji-sa	24(100)	14(58.3)	10(41.7)		
	Tongdo-sa	27(100)	14(51.9)	13(48.1)		
	Haerin-sa	19(100)	14(73.7)	5(26.3)		

Province	Temple name	Whole plants (Species/%)	Native plants (Species/%)	Cultivated plants (Species/%)	Naturalized plants (Species/%)	Introduced plants (Species/%)
Seoul /Gyeonggi-do	Bokwang-sa	19(100)	15(78.9)	4(21.1)		
	Bongsun-sa	18(100)	11(61.1)	7(38.9)		
	Bongeun-sa	24(100)	15(62.5)	9(37.5)		
	Bulam-sa	12(100)	7(58.3)	5(41.7)		
	Samcheon-sa	4(100)	3(75)	1(25)		
	Sujong-sa	12(100)	10(83.3)	2(16.7)		
	Silleuk-sa	13(100)	8(61.5)	4(30.8)	1(7.7)	
	Yongmun-sa	10(100)	8(80)	2(20)		
	Jeondeung-sa	35(100)	26(74.3)	9(25.7)		
	Jogye-sa	6(100)	3(50)	3(50)		
	Jinkwan-sa	16(100)	9(56.3)	6(37.5)		1(6.3)
	Chiljang-sa	15(100)	10(66.7)	4(26.7)	1(6.7)	
	Hwagye-sa	14(100)	10(71.4)	4(28.6)		
	Heungguk-sa(Namyangju-si)	15(100)	13(86.7)	2(13.3)		
	Heungguk-sa(Goyang-si)	10(100)	8(80)	2(20)		
Jeonla-do	Naeso-sa	30(100)	16(53.3)	13(43.3)		
	Daeheung-sa	18(100)	11(61.1)	7(38.9)		
	Baekyang-sa	19(100)	13(68.4)	6(31.6)		
	Bulgap-sa	14(100)	10(71.4)	4(28.6)		
	Sunam-sa	35(100)	19(54.3)	16(45.7)		
	Seonun-sa	27(100)	16(59.3)	11(40.7)		
	Songkwang-sa	47(100)	23(48.9)	24(51.1)		
	Hwaeom-sa	14(100)	10(71.4)	4(28.6)		
Chungcheong-do	Gap-sa	23(100)	16(69.6)	7(30.4)		
	Gaesim-sa	33(100)	22(66.7)	11(33.3)		
	Donghak-sa	15(100)	10(66.7)	5(33.3)		
	Magok-sa	20(100)	17(85)	3(15)		
	Beopju-sa	24(100)	17(70.8)	7(29.2)		
	Sudeok-sa	23(100)	15(65.2)	8(34.8)		
Total	51 temples	207(100)	128(61.84)	79(36.71)	2(0.97)	1(0.48)

2) 희귀·특산식물

IUCN 평가기준에 따른 희귀식물은 6개 범주인 야생멸종(Extinct in the wild, EW), 멸종위기종(Critical Endangered, CR), 위기종(Endangered, EN), 취약종(Vulnerable, VU), 약관심종(Least Concerned, LC), 자료부족종(Data Deficient, DD)으로 구분하였다[31]. 조사한 51개소 사찰에서 희귀식물은 검팽나무(수덕사), 구상나무(봉선사, 백양사), 눈향나무(남장사, 내소사, 동학사), 모감주나무(김룡사, 범주사), 목련(백담사 외 20개소), 범부채(송광사, 동학사), 왕벚나무(낙산사 외 14개소), 이팝나무(백양사, 송광사), 주목(정암사 외 27개소), 측백나무(부석사 외 6개소), 호랑가시나무(범어사, 불국사) 등 10과 11속 11분류군이 조사 결과 확인되었다(Teble 2). 이는 조사된 전체 207종의 식물 중 5.3% 해당되며, 우리나라 희귀식물 571분류군[27]의 1.9%에 해당된다. 이 중에서 멸종위기종으로는 목련과 왕벚나무가 조사되었고, 위기종으로는 눈향나무, 취약종으로는 모감주나무, 범부채, 주목, 호랑가시나무, 약관심종

으로는 검팽나무, 구상나무, 이팝나무, 측백나무가 조사되었다. 취약종인 주목의 경우 백담사를 포함한 28개소에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었고 그 다음으로는 멸종위기종인 목련이 수타사를 포함한 21개소에, 왕벚나무가 낙산사를 포함한 15개소의 사찰에 식재되어 있었다. 특산식물은 국립수목원[28]에 따라 정리하였고 51개소 사찰에서 확인된 특산식물로는 개나리(직지사 외 5개소), 검팽나무(수덕사), 구상나무(봉선사, 백양사), 능수버들(불국사), 병꽃나무(운문사), 신이대(내소사 외 3개소), 오동나무(봉선사, 불암사, 개심사) 등 7과 7속 7분류군이 나타났으며, 이 중 희귀·특산식물 모두에 속하는 종으로는 검팽나무와 구상나무 2분류군만이 확인되었다. 사찰에서 흔히 보이는 식물들 중에는 우리나라에서만 자라는 특산식물 혹은 우리나라에서 사라져 가는 희귀식물들이기 때문에 사찰을 방문하는 방문객과 귀화식물, 외래종으로부터의 보호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2. The list of rare and endangered plant and Korea endemic plant planted in 51 temples

Korean name	Scientific name	Rare and Endangered plant	Grade	Korea Endemic plant	Planted temple
개나리(Gae-na-ri)	<i>Forsythia koreana</i> (Rehder) Nakai			◆	(16),(19),(20),(21),(23),(44)
검쟁나무(Geom-paeng-na-mu)	<i>Celtis choseniana</i> Nakai	◆	LC	◆	(51)
구상나무(Gu-sang-sa-mu)	<i>Abies koreana</i> E.H.Wilson	◆	LC	◆	(24),(40)
눈향나무(Nun-hyang-na-mu)	<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A.Henry	◆	EN		(12),(38),(48)
능수버들(Neung-su-beo-deul)	<i>Salix pseudolasiogyne</i> H.Lév.			◆	(16)
모감주나무(Mo-gam-ju-na-mu)	<i>Koelreuteria paniculata</i> Laxmann	◆	VU		(11),(50)
목련(Mok-ryeon)	<i>Magnolia kobus</i> DC.	◆	CR		(2),(4),(10),(12),(13),(16),(17),(18),(19),(21),(22),(24),(25),(28),(38),(43),(44),(46),(48),(49),(50)
범부채(Beom-bu-chaе)	<i>Belamcanda chinensis</i> (L.) DC.	◆	VU		(44),(48)
병꽃나무(Byeong-kkot-na-mu)	<i>Weigela subsessilis</i> (Nakai) L.H.Bailey			◆	(19)
신이대(Sin-i-dae)	<i>Sasa coreana</i> Nakai			◆	(16),(22),(38),(49)
오동나무(O-dong-na-mu)	<i>Paulownia coreana</i> Uyeki			◆	(24),(26),(47)
왕벚나무(Wang-beot-na-mu)	<i>Prunus yedoensis</i> Matsum.	◆	CR		(1),(5),(8),(11),(13),(19),(21),(29),(38),(42),(45),(46),(48),(50),(51)
이팝나무(I-pap-na-mu)	<i>Chionanthus retusus</i> Lindl. & Paxton	◆	LC		(40),(44)
주목(Ju-mok)	<i>Taxus cuspidata</i> Siebold & Zucc.	◆	VU		(2),(4),(6),(7),(8),(9),(10),(15),(19),(22),(23),(24),(25),(28),(29),(30),(31),(33),(34),(35),(36),(37),(38),(40),(43),(44),(48),(50)
측백나무(Cheuk-baek-na-mu)	<i>Thuja orientalis</i> L.	◆	LC		(15),(19),(20),(25),(31),(42),(49)
호랑가시나무(Ho-rang-ga-si-na-mu)	<i>Ilex cornuta</i> Lindl. & Paxton	◆	VU		(13),(16),(38),(40)

Table 3. The list of naturalized plants planted in 51 temples

Korean name	Scientific name	Degree of Naturalizing	Time of Naturalizing	Origin	Life type	Planted Temple
가죽나무(Ga-juk-na-mu)	<i>Ailanthus altissima</i> (Mill.) Swingle	5	1	Asia (China)	Peren-rial	(4)
아까시나무(A-kka-si-na-mu)	<i>Robinia pseudoacacia</i> L.	5	1	North America	Peren-rial	(29),(34)

Degree of Naturalizing (1: Rare plant, 2: Local and not abundant plant, 3: Common but not abundant plant, 4: Local but abundant plant, 5: Common and abundant plant)
 Time of Naturalizing (1: 1876~1921, 2:1922~1963, 3:1964~at this time)

3) 귀화식물

51개소 사찰에서 확인된 귀화식물로는 가죽나무(원산지: 중국)가 수타사에 식재되어 있으며, 아까시나무(원산지: 북아메리카)가 신륵사와 칠장사에 식재되어 있었다(Table 3). 두 식물 모두 귀화도는 5등급이고, 귀화시기는 1로 1876~1921년 때 이입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된 전체 207종의 관속식물 중 귀화율(NR)은 0.96%에 해당된다.

4) 불교 관련 식물

조사된 식물 중에서 불교 경전에 언급된 불교 관련 식물로는, 식물을 법에 비유하여 설법에 이용한 계수나무(수타사, 법주사)[32], 대추나무(수타사), 파초(수종사 외 9개소) 등이 있으며 화두와 선시¹⁾에 등장한 느릅나무(상원사 외 5개소), 단풍나무(부석사의 34개소), 동백나무(천은사 외 11개소) 등과 선사 수행²⁾과 관련된 벚나무(청평사 외 19개소) 등, 불교적 의식(호마)³⁾에 사용된 살구나무(직지사 외 5개소), 잣나무(백담사 외 3개소), 향나무(개심사 외 29개소) 등, 불보살 장엄⁴⁾에 이용한 석산(쌍계사, 전등사, 선운사), 수련(낙산

사), 연꽃(낙산사, 불국사) 등이 있었다. 이 외에도 불교 경전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많은 사람들이 성장과 생육 습성에서 수도승과 절, 부처님을 연상하며 부처님 오신 날인 4월 초파일 전후에 피어나는 불두화(정암사 외 19개소), 부처가 태어났을 때 수국차로 몸을 씻었다는 전설에서 유래되어 석가탄신일에 수국차를 석가상에 붓는 풍습이 전해지는 수국(통도사 외 5개소), 연등회와 같은 국가적 종교행사 때 사찰 경관 증진을 위해 많이 식재된 배롱나무(김룡사 외 28개소), 염주를 만드는데 이용한 찰피나무(조계사 외 17개소)와 꽃잎이 희고 현세의 향기가 아닌 극락의 향기라는 치자나무(쌍계사, 내소사, 송광사) 등이 불교와 관련된 식물로 식재되어 있었다[12, 15, 16, 17, 32].

2. 식재 정비방안

전국 51개소 사찰의 식재 수종 현황 조사를 통해 사찰정원에 식재된 자생, 재배, 귀화, 희귀 및 특산식물, 불교와 관련이 있는 식물 등을 분석하였다. 사찰정원이 한국전통정원을 대표하

는 정원 중 하나로 전통성을 지니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선정이 필요하다.

불교와 관련이 있는 식물인 계수나무, 찰피나무, 파초, 살구 나무, 향나무, 연꽃, 불두화 등을 포인트 식재 수준으로 제시 하며, 불교와 관련이 있으면서 자생 수준인 느릅나무, 단풍나 무, 동백나무, 뱃나무, 잣나무, 향나무 등을 자연스럽게 배식 함으로써 전통성과 불교적 색깔을 함께 나타낼 수 있다고 판 단된다.

또한, 다른 한국정원과 달리 사찰 정원으로서는 그 의미와 특 징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찰 내부 공간의 성격에 따라 식재 정 비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1) 진입로 영역

사찰의 일주문은 사바세계의 고통을 인지함으로서 깨달음 의 길을 출발하는 곳이자 모든 사찰에서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공간이다[33]. 일주문에서 대웅전까지 이어지는 공간에는 수 령이 오래된 나무들이 열식되기도 하고, 자연림이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Figure 8). 따라서 자연림에서 인위적인 공간으 로의 전이공간으로서의 특성이 강한 진입로 영역에서는 자생 종을 중심으로 한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 로 판단된다. 단, 진입로 공간이 외래종을 이용한 인위적인 식 재가 이루어진 사찰의 경우에는 소나무, 느티나무, 단풍나무, 향나무, 주목, 전나무 등 자생종 목본류를 중심으로 수목이 정 비되어, 자연림에서의 자연스러운 전개를 보여주는 것이 바람 직하겠다.

진입로 영역은 관람객이 이동하는 공간으로 이동의 편의성 을 위해 콘크리트, 경화마사토 포장이 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 데, 식물 특히 노거수의 뿌리 생육 공간이 부족하여 수목의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 또한 포장되지 않은 곳은 답압이 심하 여 공기유통이나 수분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식물 생육을 고려한 관리를 위해 진입로에는 인위적 인 포장을 삼가고 답압으로 훼손이 우려되는 노거수 주변으 로 공간이 협소한 경우 디딤돌을 조성하거나, 여유 공간이 있 고 진입로 영역의 원형을 왜곡하지 않는 경우에 한해서 데크 를 설치하는 등 답압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 하다.



Figure 8. Iljumun of Gap-sa (the left) and Haein-sa temple (the right)

2) 경내 마당 영역

사찰의 경내 마당 공간은 종교행사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 식 물의 도입이 절제되고 있으며, 녹음과 계절감을 감상하기 위해 상록수보다 낙엽수를 선호했고, 통풍과 채광을 고려하여 밀식보 다는 점적 요소로서 식재가 이루어지고 있다[18]. 주요 낙엽수로 는 단풍나무, 은행나무, 찰피나무 등이 점식되어 있고(Figure 9), 그 외 불교적 의미가 큰 식물인 불두화, 석산, 파초 등이 화단을 구성하며 식재되어 있었으며, 연지 축조 등을 통하여 연꽃을 식 재하는 경우가 많았다(Figure 10). 따라서 인위적 식재의 성격이 강한 경내 식재 공간에는 자칫 소홀히 관리하면 무분별한 외래종 식재가 가능하므로, 불교적 의미가 있는 식물의 점식 이외에는 외래종 식재를 지양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경내 점식되어 있는 노거수의 보호에 가장 중요한 것은 뿌리의 보호와 활력을 유지하는 것인데[34], 현재 많은 사찰 경내에서는 노거수의 뿌리 생육에 저해되는 포장이 많이 되어 있다(Figure 11). 식물 생육을 고려하여 답압으로부터 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동선을 왜곡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데크를 지면에서 띄워서 설치한 후 휴게공간으로 활용한다면 관람객



Figure 9. Point planting of *Ginkgo biloba* in Jikji-sa (the left) and *Tilia mandshurica* in Beopju-sa temple (the right)



Figure 10. The planting of *Musa basjoo* in Jikji-sa (the left) and *Nelumbo nucifera* in Naksan-sa temple (the right)



Figure 11. Wrong management examples of old trees (Sudeok-sa temple)

들에게 훌륭한 그늘을 제공하면서 뿌리 답압에도 보호되어 노거수 공간을 문화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3) 배경림과의 경계 또는 화계 영역

사찰은 주로 산악지형에 건립된 경우가 많아 단을 많이 이용하였고, 따라서 화계의 조성이 활발히 이루어졌다. 화계에는 초화, 화목, 석물 등을 배치하여 조경공간의 한 부분으로 이용하였다[6]. 사찰화계의 경우(Figure 12) 대부분 각진 사각형과 직선평행형으로 정형성을 가지고 있다[35]. 평지에 조성된 사찰의 경우에는 화단 조성 등을 통해 외부에 쉽게 드러나지 않도록 차폐하기도 하였다(Figure 13). 따라서 배경림과 연결되는 이와 같은 공간에서는 산세의 특색에 맞는 식재가 필요하다. 특히 여러 수종을 조합하여 식재하기 보다는 동일 수종을 선정하는 균식 기법이 수형의 조화와 식생의 연속성을 도모하는 방안[36]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 12. Terraced flower beds Haein-sa (the left) and Bulgap-sa temple (the right)



Figure 13. The screen planting of *Osmanthus fragrans* in Seonam-sa (the left) and *Chaenomeles sinensis* Beopju-sa temple (the right)

한편, 배경림과의 경계에 보호수가 위치하는 경우 철제 휨스가 좁은 사면에 설치되어 오히려 뿌리를 훼손할 뿐만 아니라 산악지형 경관을 단절시키는 경우가 있다. 이를 고려한 관리 방안을 제시한다면, 배경림과 연계되는 곳에 지정된 보호수의 경우 과도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기 보다는 보호수임을 인지할 수 있는 간단한 안내판을 뿌리에서 떨어진 장소에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V. 결론

우리나라 전통사찰은 지리적 이점으로 주변경관이 아름다운 곳에 입지해 있어 종교적 공간으로써 사찰뿐만 아니라 경관감

상을 위해 국내·외적으로 관심과 방문이 증가하고 있다. 우리의 역사·문화를 간직한 사찰이 세계화에 앞서 전통성을 유지하기 위해 전국 전통사찰 51개소를 대상으로 사찰 경내 식재 현황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사찰 경내 식재 정비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으며, 도출된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사찰 경내 식재 실태를 파악한 결과, 총 207종의 식물이 식재되어 있으며 자생식물은 128종(61.84%), 재배식물은 76종(36.71%), 귀화식물은 2종(0.97%), 도입식물 1종(0.48%)으로 자생식물의 비율이 가장 높았다. 전국 사찰에 가장 많이 식재되어 있는 상위 3종은 소나무(46개소), 느티나무(38개소), 은행나무(36개소)였으며 희귀식물로는 검쟁나무, 구상나무, 눈향나무가 조사되었는데 이는 조사된 전체 207종의 식물 중 5.3% 해당된다. 특산식물로는 병꽃나무, 신이대, 오동나무 등이 조사되었으며, 귀화식물은 아까시나무(신록사, 칠장사), 가죽나무(수타사) 2종만 존재하였고, 도입식물로는 진관사의 일본오염송 1종이 조사되었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전통 사찰정원에는 불교적 의미가 있는 식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적 의미를 가지는 식물의 식재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나, 역사적인 공간으로써의 특징이 더 크게 보였다.

둘째, 사찰 내부 공간에 따른 식재 정비 방안을 공간별로 제안할 수 있다. 먼저, 진입로 영역은 자연림에서의 전이공간으로서의 특성을 살려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경내 마당 영역은 자칫 무분별한 외래종 식재가 우려되므로, 불교적 의미가 있는 식물의 점식 외에는 외래종 식재를 지양하는 것이 좋겠으며, 화계 영역의 경우 여러 수종보다는 동일 수종의 균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식물 생육을 고려한 관리 방안으로는, 사찰 내에 생육하고 있는 노거수의 보호에 중요한 뿌리의 보호와 활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답압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동선 포장 및 관리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사찰 경내 생육하는 주요 수종의 현지조사를 바탕으로 현황을 분석하고 정비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시간에 따른 수목의 변화로 인한 사료 고증의 한계, 사료 기록 수종명 검증의 한계, 토착식물의 맹목적 식재 권장의 한계 등으로 실태와 정비 방안의 개연성이 미흡한 한계가 있다. 앞으로, 사료 기록 수종명 검증 등의 다양한 검증 연구가 함께 수행되어 다양한 접근과 시도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주 1) 화두란 불교의 근본진리를 묻는 물음에 대한 선사들의 대답이거나, 혹은 제자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언어, 행동을 기술한 것이며 선사란 선사상을 통한 깨달음의 세계나 과정, 체험 등을 운문 형식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며 주로 수도의 경지를 읊은 내용이 많다.
- 주 2) 선사는 승려를 높이는 말로, 승려의 수행에 지침이 되는 내용을 의미
- 주 3) 불을 피우며 그 불 속에 공양물을 던져넣어 피우는 의식을 의미
- 주 4) 향이나 꽃 따위를 부처에게 올려 장식하는 것을 의미

REFERENCES

- [1] Jeon, Y. W. (2015). Jeon Young Woo's Stories of temple forest: Part 2. Buddhism, religion of forest. Contributions of Buddhism Newspaper 2015.01.26.
- [2] Jeon, Y. W.(2009). Origin formation and function of temple forest. Forest and humanity. 21: 1-15.
- [3] Korea Forest Service.(2015). Forest managed by Buddhism, Temple Forest.
- [4] Yi, P. I. and Yi, Y. K. (2000). Study of Temple Environment. Sillamunwhawon: Gyeongsangbukdo.
- [5] Heo, S. H.(2005). A Study on the Planting Condition of Traditional Temples - Bulguksa, Bunhwangsa, Kirimsa, Gulgusa. The Study of Buddhist landscape architecture. 10: 79-92.
- [6] You, J. H., Hong, K. P. and Lee, D. H.(2010). Landscape Plants and Planting Characteristics of Three-Treasure Templ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38:119-128.
- [7] Jeon, U. S.(1996). A study on the species planted in the private, public institutions and attractions. Korean journal of nature conservation. 15: 27-62.
- [8] Shin, J. H.(1997). Korea of foreign species status and improvement measures. National forestry cooperative federation. 373: 90-95.
- [9] Thomas, M. S.(2016). Elements of Ecology. LifeScience: Seoul.
- [10] Buddhist temple ecology Research Institute(2014). plant ties with Buddhism. Buddhist temple ecology Research Institute Research Reports.
- [11] Shin, Y. C. and Kwak, B. H.(1982). Study on landscape and flora of Korean temples. Collection of dissertation of Pai Chae University. 3: 345-410.
- [12] Kwon, Y. H.(1993). Tree Story. Seoul: Jeonwon.
- [13] Kim, Y. S. and Rho, J. H.(2014).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Musa basjoo* planting in folk village and traditional templ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 124-133.
- [14] Rho, J. H., Kim, Y. S. and Goh, Y. B.(2014). Aspects and Significance of *Musa basjoo*, a Landscaping Plant - Focused on Analysis of Old Paintings of Chosun Dynasty -.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8(2): 23-36.
- [15] Jung, H. K. and Kim, S. H.(2007). Trees of our living. National Institute of Forest Science, Korea Forest Service.
- [16] Lee, S.(2006). Study on planting in Korean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Suryusanbang, Seoul.
- [17] Shim, J. S. and Bae, J. K.(2004). An Investigation Study on The Planting Arrangement of Ornamental Plants in Four Level Land Buddhist Temples. Journal of Natural Sciences Pai Chai University, Korea. 14: 123-138.
- [18] Ha, J. H. and Kim, N. C.(1999). Studies on the flora and management planning at the Bulkuk temple. Temple Landscape Research. 7: 43-59.
- [19] Hong, K. P. and You, J. H.(2015). Evaluation of planting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of landscape plants of Haein-sa. Sillamunhwa. 46: 365-386.
- [20] Yeon, J. A. and Park, W. K.(2013). Species Identification of Wooden Elements Used for Daewungjeon Hall in the Bukjijangsa Temple, Daegu, Korea. Forest Products. 41(3): 201-210.
- [21] Baeg, J. C., Kim, Y. G. and Gong, Y. B.(2003). A Study on the Repair Project of the Hwagye after Restoration of the Chybyong in the Juhapru at the Changdeokkung Palace.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21: 31.
- [22] Choi, S. B. and Ha, J. H.(1998). Studies on the flora at the Bulgap temple. Temple Landscape Research. 6: 181-200.
- [23] Beak, D. I.(2011). A study of the current situation and characteristics of scenic planting following spatial arrangement of temples in the greater Chunnam area. Master thesis of Dongshin University Graduate School.
- [24] Ha, J. H., Hong, K. P. and Kim, N. C.(1997). A study on the planting status of landscaping plants of Sunam temple. Temple Landscape Research. 5: 45-57.
- [25] Park, C. W., Jeong, M. A. and Lee, Y. H.(2015). A Study on Reasons for Planting *Abies holophylla* by Imperial Japan in Korean Templ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43(4): 50-61.
- [26] Lee, W. H., Kim, D. H., Kim, J. U., Ahn, H. I., Kim, D. Y. and Cho, U. Y.(2014). A Study on the Maintenance Plan of Trees in Gwanghalluwon Garden for Representing Traditional Space. Journal of Korean Institute of Traditional Landscape Architecture. 32(3): 82-95.
- [27] Korea forest service, Korea National Arboretum(2008). Rare plants data book in Korea. Korea National Arboretum.
- [28] Korea National Arboretum(2005). Endemic vascular plants in the Korean peninsula. Korea National Arboretum.
- [29] Lee, Y. M., Park, S. H., Jung, S. Y., Oh, S. H. and Yang, J. C.(2011). Study on the current status of naturalized plants in South Korea. Korean J. Pl. Taxon. 41(1): 87-101.
- [30] Numata(1975). Naturalized Plants. Tokyo: Japanese books.
- [31] Oh, H. K., Choi, Y. H. and You J. H.(2014). Analysis of ecological index of plant using flora distributed in temple forest. Journal of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23: 251-270.
- [32] Min, T. Y., Park, S. K. and Lee, Y. S.(2011). Plants in the scripture. Idambooks.
- [33] Peck, Y. J. and Kwak, D. Y.(2008). A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constituent in entry area on Buddhism temples around Seoul. Journal of the Architectural Institute of Korea Planning and Design. 24: 159-166.
- [34] Korea Research Group of Tree Protection(2001). Study on conservation methods of protection and old trees in Seoul. Tree Protection. 6: 58-74.
- [35] Hong, K. P., Lee, S. Y. and Jang, B. H.(2000). A study on the Hwagye(artificial plant stairs) of buddhist temples.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Landscape Architecture. 18: 13-25.
- [36] Chung, J. H.(2005). Status and challenges of landscape in historic site. Proceedings of Symposium of the National Research Institute of Cultural Heritage pp:11-19.

원 고 접 수 일: 2016년 1월 18일
 심 사 일: 2016년 2월 29일 (1차)
 : 2016년 3월 18일 (2차)
 계 재 확 정 일: 2016년 3월 21일
 3인 익명 심사필, 1인 영문 abstract 교정필

Appendix 1. Information of 51 traditional Korean temples

Province(number of temples)	Number	Korean name	Korean address
Gangwon-do (9)	(1)	낙산사(洛山寺)	강원도 양양군 강현면 낙산사로 100
	(2)	백담사(百潭寺)	강원도 인제군 북면 백담로 746
	(3)	상원사(上院寺)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산1번지
	(4)	수타사(壽陀寺)	강원도 홍천군 동면 수타사로 473
	(5)	신흥사(新興寺)	강원도 속초시 설악산로 1137
	(6)	월정사(月精寺)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오대산로 374-8
	(7)	정암사(淨巖寺)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 함백산로 1410
	(8)	천은사(天恩寺)	강원도 원주시 귀래면 귀래리 산 248번지
	(9)	청평사(淸平寺)	강원도 춘천시 북산면 오봉산길 810
Busan /Gyeongsang-do (13)	(10)	고운사(孤雲寺)	경상북도 의성군 단촌면 고운사길 415
	(11)	김룡사(金龍寺)	경상북도 문경시 산북면 김룡길 372
	(12)	남장사(南長寺)	경상북도 상주시 남장1길 259-22
	(13)	범어사(梵魚寺)	부산광역시 금정구 범어사로 250
	(14)	봉정사(鳳亭寺)	경상북도 안동시 서후면 봉정사길 222
	(15)	부석사(浮石寺)	경상북도 영주시 부석면 부석사로 345
	(16)	불국사(佛國寺)	경상북도 경주시 진현동 15-1번지
	(17)	불영사(佛影寺)	경상북도 울진군 서면 불영사길 48
	(18)	쌍계사(雙溪寺)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쌍계사길 59
	(19)	운문사(雲門寺)	경상북도 청도군 운문면 운문사길 264번지
	(20)	직지사(直指寺)	경상북도 김천시 대항면 직지사길 95
	(21)	통도사(通度寺)	경상남도 양산시 하북면 통도사로 108
	(22)	해인사(海印寺)	경상남도 함천군 가야면 해인사길 122
Seoul /Gyeonggi-do (15)	(23)	보광사(普光寺)	경기도 파주시 보광로 474번길 87
	(24)	봉선사(奉先寺)	경기도 남양주시 진접읍 부평리 255
	(25)	봉은사(奉恩寺)	서울특별시 강남구 봉은사로 531
	(26)	불암사(佛巖寺)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불암사로 190
	(27)	삼천사(三千寺)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동 산 34번지
	(28)	수종사(水鍾寺)	경기도 남양주시 조안면 북한강로 433번길 186
	(29)	신륵사(神勒寺)	경기도 여주시 신륵로 신륵사길 73
	(30)	용문사(龍門寺)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산로 782
	(31)	전등사(傳燈寺)	인천광역시 강화군 길상면 전등사로 37-41
	(32)	조계사(曹溪寺)	서울특별시 종로구 우정국로 55
	(33)	진관사(津寬寺)	서울특별시 은평구 진관길 73
	(34)	칠장사(七長寺)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칠장로 399-18
	(35)	화계사(華溪寺)	서울특별시 강북구 화계사길 117
	(36)	흥국사(興國寺)	경기도 남양주시 별내동 331
	(37)	흥국사(興國寺)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지족동 203번지
Jeonla-do (8)	(38)	내소사(來蘇寺)	전라북도 부안군 진서면 내소사로 243
	(39)	대흥사(大興寺)	전라남도 해남군 삼산면 대흥사길 400
	(40)	백양사(白羊寺)	전라남도 장성군 북하면 백양로 1239
	(41)	불갑사(佛甲寺)	전라남도 영광군 불갑면 불갑사로 450
	(42)	선암사(仙巖寺)	전라남도 순천시 승주읍 선암사길 450
	(43)	선운사(禪雲寺)	전라북도 고창군 아산면 선운사로 250
	(44)	송광사(松廣寺)	전라남도 순천시 송광면 송광사안길 100
	(45)	화엄사(華嚴寺)	전라남도 구례군 마산면 화엄사로 539
Chungcheong-do (6)	(46)	갑사(甲寺)	충청남도 공주시 계룡면 갑사로 567-3
	(47)	개심사(開心寺)	충청남도 서산시 운산면 개심사로 321-86
	(48)	동학사(東鶴寺)	충청남도 공주시 반포면 동학사로 462
	(49)	마곡사(麻谷寺)	충청남도 공주시 사곡면 마곡사로 966
	(50)	법주사(法住寺)	충청북도 보은군 속리산면 법주사로 405
	(51)	수덕사(修德寺)	충청남도 예산군 덕산면 수덕사안길 79

Appendix 2. List of species planted in 51 temples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Type	Number of species	Number of temples
1	가래나무	<i>Juglans mandshurica</i> Maxim.	Native plant	1	(23)
2	가죽나무	<i>Ailanthus altissima</i> (Mill.) Swingle	Naturalized plant	1	(4)
3	갈참나무	<i>Quercus aliena</i> Blume	Native plant	17	(5),(8),(10),(12),(14),(19),(20),(23),(24),(25),(31),(37),(41),(43),(46),(49),(51)
4	감나무	<i>Diospyros kaki</i> Thunb.	Native plant	19	(1),(10),(13),(14),(15),(19),(20),(21),(23),(31),(36),(38),(39),(41),(42),(43),(45),(46),(47)
5	개나리	<i>Forsythia koreana</i> (Rehder) Nakai	Native plant	6	(16),(19),(20),(21),(23),(44)
6	개비자나무	<i>Cephalotaxus koreana</i> Nakai	Native plant	3	(15),(18),(45)
7	개살구나무	<i>Prunus mandshurica</i> (Maxim.) Koehne	Native plant	1	(46)
8	개서어나무	<i>Carpinus tschonoskii</i> Maxim.	Native plant	5	(13),(16),(30),(31),(47)
9	개잎갈나무	<i>Cedrus deodara</i> (Roxb. ex D.Don) G.Don	Native plant	3	(16),(20),(45)
10	검양옥나무	<i>Rhus succedanea</i> L.	Native plant	1	(47)
11	검팽나무	<i>Celtis choseniana</i> Nakai	Native plant	1	(51)
12	계수나무	<i>Cercidiphyllum japonicum</i> Siebold & Zucc. ex J.J.Hoffm. & J.H.Schult,bis	Cultivated plant	2	(4),(50)
13	고로쇠나무	<i>Acer pictum</i> subsp. <i>mono</i> (Maxim.) Ohashi	Native plant	6	(6),(7),(28),(31),(47),(49)
14	고욤나무	<i>Diospyros lotus</i> L.	Native plant	3	(15),(16),(46)
15	골담초	<i>Caragana sinica</i> (Buc'hoz) Rehder	Native plant	3	(15),(39),(51)
16	곰솔	<i>Pinus thunbergii</i> Parl.	Native plant	2	(44),(51)
17	곶향나무	<i>Juniperus sibirica</i> Burgsd.	Native plant	1	(44)
18	공작단풍	<i>Acer palmatum</i> var. <i>dissectum</i> (Thunb.) Miq.	Cultivated plant	5	(3),(6),(19),(23),(39)
19	구골나무	<i>Osmanthus heterophyllus</i> (G.Don) P.S.Green	Cultivated plant	5	(11),(18),(21),(38),(42)
20	구상나무	<i>Abies koreana</i> E.H.Wilson	Native plant	2	(24),(40)
21	구절초	<i>Dendranthema zawadskii</i> var. <i>latilobum</i> (Maxim.) Kitam.	Native plant	1	(22)
22	국수나무	<i>Stephanandra incisa</i> (Thunb.) Zabel	Native plant	1	(9)
23	국화	<i>Chrysanthemum morifolium</i> Ramat.	Cultivated plant	3	(19),(23),(44)
24	굴거리나무	<i>Daphniphyllum macropodum</i> Miq.	Native plant	1	(40)
25	굴참나무	<i>Quercus variabilis</i> Blume	Native plant	10	(1),(8),(12),(19),(31),(37),(41),(42),(47),(49)
26	굴피나무	<i>Platycarya strobilacea</i> Siebold & Zucc.	Native plant	2	(47),(51)
27	귀룽나무	<i>Prunus padus</i> L.	Native plant	1	(2)
28	금강소나무	<i>Pinus densiflora</i> f. <i>erecta</i> Uyeki	Native plant	2	(8),(17)
29	금목서	<i>Osmanthus fragrans</i> var. <i>aurantiacus</i> Makino	Cultivated plant	5	(13),(21),(38),(44),(51)
30	금송	<i>Sciadopitys verticillata</i> (Thunb.) Siebold & Zucc.	Cultivated plant	1	(13)
31	금식나무	<i>Aucuba japonica</i> f. <i>variegata</i> (Dombrain) Rehder	Cultivated plant	1	(42)
32	꽃사과나무	<i>Malus floribunda</i> Siebold ex Van Houtte	Cultivated plant	2	(8),(21)
33	꽃산딸나무	<i>Cornus florida</i> L.	Cultivated plant	1	(19)
34	꽃양귀비	<i>Papaver nudicaule</i> L.	Cultivated plant	1	(48)
35	광광나무	<i>Ilex crenata</i> Thunb.	Native plant	5	(13),(16),(19),(21),(42)
36	남천	<i>Nandina domestica</i> Thunb.	Cultivated plant	3	(18),(42),(44)
37	노각나무	<i>Stewartia pseudocamellia</i> Maxim.	Native plant	1	(4)
38	눈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var. <i>sargentii</i> A.Henry	Native plant	3	(12),(38),(48)
39	느릅나무	<i>Ulmus davidiana</i> var. <i>japonica</i> (Rehder) Nakai	Native plant	6	(3),(4),(6),(16),(22),(40)
40	느티나무	<i>Zelkova serrata</i> (Thunb.) Makino	Native plant	38	(1),(4),(8),(10),(11),(12),(14),(16),(17),(18),(19),(20),(21),(22),(23),(24),(25),(26),(28),(29),(30),(31),(33),(35),(36),(37),(38),(39),(41),(43),(44),(45),(46),(47),(48),(49),(50),(51)
41	능소화	<i>Campsis grandifolia</i> (Thunb.) K.Schum.	Cultivated plant	2	(9),(19)
42	능수버들	<i>Salix pseudolasiogyne</i> H.Lév.	Cultivated plant	1	(16)
43	다래	<i>Actinidia arguta</i> (Siebold & Zucc.) Planch,ex Miq.	Native plant	2	(12),(23)
44	단풍나무	<i>Acer palmatum</i> Thunb.	Native plant	35	(2),(6),(7),(10),(12),(13),(15),(16),(17),(18),(19),(20),(21),(22),(23),(25),(26),(28),(29),(30),(31),(33),(34),(35),(37),(38),(39),(40),(42),(43),(44),(46),(47),(48),(49),(50),(51)
45	담쟁이덩굴	<i>Parthenocissus tricuspidata</i> (Siebold & Zucc.) Planch.	Native plant	3	(5),(7),(43)
46	당단풍나무	<i>Acer pseudosieboldianum</i> (Pax) Kom.	Native plant	9	(2),(3),(5),(8),(14),(22),(31),(40),(44)
47	대추나무	<i>Zizyphus jujuba</i> var. <i>inermis</i> (Bunge) Rehder	Cultivated plant	1	(4)
48	돌배나무	<i>Pyrus pyrifolia</i> (Burm.f.) Nakai	Native plant	1	(19)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Type	Number of species	Number of temples
49	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L.	Native plant	12	(8),(13),(18),(21),(38),(39),(41),(42),(43),(44),(45),(47)
50	두릅나무	<i>Aralia elata</i> (Miq.) Seem.	Native plant	1	(35)
51	들메나무	<i>Fraxinus mandshurica</i> Rupr.	Native plant	2	(2),(7)
52	등	<i>Wisteria floribunda</i> (Willd.) DC.	Native plant	3	(12),(13),(25)
53	매죽나무	<i>Styrax japonicus</i> Siebold & Zucc.	Native plant	2	(31),(34)
54	떡갈나무	<i>Quercus dentata</i> Thunb.	Native plant	2	(1),(8)
55	마가목	<i>Sorbus commixta</i> Hedl.	Native plant	1	(7)
56	마삭줄	<i>Trachelospermum asiaticum</i> (Siebold & Zucc.) Nakai	Native plant	1	(38)
57	마취목	<i>Pteris japonica</i> D. Don ex G.Don	Cultivated plant	1	(19)
58	만첩개벚	<i>Prunus verecunda</i> var. <i>semiplena</i> (Nakai) W.T.Lee	Native plant	3	(12),(47),(42)
59	말채나무	<i>Cornus walteri</i> F.T.Wangerin	Native plant	7	(10),(16),(23),(28),(31),(36),(46)
60	매실나무	<i>Prunus mume</i> (Siebold) Siebold & Zucc.	Cultivated plant	16	(1),(11),(13),(14),(15),(16),(19),(21),(22),(38),(39),(42),(44),(45),(47),(50)
61	맥문동	<i>Liriope platyphylla</i> F.T.Wang & T.Tang	Native plant	1	(44)
62	맨드라미	<i>Celosia cristata</i> L.	Cultivated plant	2	(44),(47)
63	멸구슬나무	<i>Melia azedarach</i> L.	Native plant	1	(44)
64	모감주나무	<i>Koelreuteria paniculata</i> Laxmann	Native plant	2	(11),(50)
65	모과나무	<i>Chaenomeles sinensis</i> (Thouin) Koehne	Cultivated plant	12	(8),(16),(19),(25),(31),(38),(39),(40),(43),(45),(46),(50)
66	모란	<i>Paeonia suffruticosa</i> Andrews	Cultivated plant	4	(8),(11),(33),(44)
67	목련	<i>Magnolia kobus</i> DC.	Native plant	21	(2),(4),(10),(12),(13),(16),(17),(18),(19),(21),(22),(24),(25),(28),(38),(43),(44),(46),(48),(49),(50)
68	목서	<i>Osmanthus fragrans</i> Lour.	Cultivated plant	2	(31),(42)
69	무궁화	<i>Hibiscus syriacus</i> L.	Cultivated plant	8	(11),(13),(15),(19),(24),(38),(43),(47)
70	물푸레나무	<i>Fraxinus rhynchophylla</i> Hance	Native plant	4	(2),(5),(47),(49)
71	박태기나무	<i>Cercis chinensis</i> Bunge	Cultivated plant	8	(5),(11),(15),(19),(31),(43),(44),(50)
72	반송	<i>Pinus densiflora</i> f. <i>multicaulis</i> Uyeki	Native plant	9	(3),(6),(11),(13),(16),(20),(22),(27),(45)
73	밤나무	<i>Castanea crenata</i> Siebold & Zucc.	Native plant	8	(4),(5),(10),(15),(20),(26),(31),(36)
74	배나무	<i>Pyrus pyrifolia</i> var. <i>culta</i> (Makino) Nakai	Cultivated plant	1	(15)
75	배롱나무	<i>Lagerstroemia indica</i> L.	Cultivated plant	29	(5),(8),(10),(11),(12),(14),(15),(16),(17),(18),(19),(20),(21),(25),(29),(31),(32),(33),(35),(37),(39),(40),(41),(42),(43),(44),(46),(47),(51)
76	백당나무	<i>Viburnum opulus</i> var. <i>calvescens</i> (Rehder) H. Hara	Native plant	1	(7)
77	백목련	<i>Magnolia denudata</i> Desr.	Cultivated plant	5	(15),(18),(25),(35),(44)
78	백송	<i>Pinus bungeana</i> Zucc.ex Endl.	Cultivated plant	5	(17),(32),(38),(43),(50)
79	백합나무	<i>Liriodendron tulipifera</i> L.	Cultivated plant	2	(16),(18)
80	버드나무	<i>Salix koreensis</i> Andersson	Native plant	3	(2),(7),(13)
81	범부채	<i>Belamcanda chinensis</i> (L.) DC.	Native plant	2	(44),(48)
82	벚나무	<i>Prunus serrulata</i> var. <i>spontanea</i> (Maxim.) E.H.Wilson	Native plant	20	(1),(5),(6),(9),(11),(13),(16),(18),(19),(22),(23),(25),(28),(31),(34),(35),(38),(49),(50),(51)
83	벽오동	<i>Firmiana simplex</i> (L.) W.F.Wight	Cultivated plant	5	(13),(20),(38),(42),(46)
84	별목련	<i>Magnolia stellata</i> Maxim.	Cultivated plant	1	(16)
85	병꽃나무	<i>Weigela subsessilis</i> (Nakai) L.H.Bailey	Native plant	1	(19)
86	복자기	<i>Acer triflorum</i> Kom.	Native plant	2	(9),(34)
87	분비나무	<i>Abies nephrolepis</i> (Trautv. ex Maxim.) Maxim.	Native plant	1	(4)
88	불두화	<i>Viburnum opulus</i> f. <i>hydrangeoides</i> (Nakai) Hara	Cultivated plant	20	(1),(4),(6),(7),(8),(10),(11),(12),(14),(15),(16),(18),(20),(22),(26),(31),(33),(34),(42),(44)
89	붉가시나무	<i>Quercus acuta</i> Thunb.	Native plant	1	(39)
90	붉나무	<i>Rhus javanica</i> L.	Native plant	1	(12)
91	붓꽃	<i>Iris sanguinea</i> Donn ex Horn	Native plant	1	(15)
92	비비추	<i>Hosta longipes</i> (Franch. & Sav.) Matsum.	Native plant	1	(48)
93	비자나무	<i>Torreya nucifera</i> (L.) Siebold & Zucc.	Native plant	1	(40)
94	비파나무	<i>Eriobotrya japonica</i> (Thunb.) Lindl.	Cultivated plant	2	(39),(44)
95	팽나무	<i>Morus alba</i> L.	Cultivated plant	6	(2),(11),(14),(25),(34),(46)
96	사철나무	<i>Euonymus japonicus</i> Thunb.	Native plant	9	(11),(16),(18),(25),(28),(43),(44),(47),(51)
97	산당화	<i>Chaenomeles speciosa</i> (Sweet) Nakai	Cultivated plant	1	(6)
99	산돌배	<i>Pyrus ussuriensis</i> Maxim.	Native plant	2	(3),(6)
98	산딸나무	<i>Cornus kousa</i> F.Buerger ex Hance	Native plant	2	(10),(31)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Type	Number of species	Number of temples
100	산벚나무	<i>Prunus sargentii</i> Rehder	Native plant	1	(10)
101	산팽나무	<i>Morus bombycis</i> Koidz.	Native plant	1	(9)
102	산사나무	<i>Crataegus pinnatifida</i> Bunge	Native plant	4	(4),(6),(25),(49)
103	산수유	<i>Cornus officinalis</i> Siebold & Zucc.	Cultivated plant	14	(4),(15),(16),(17),(18),(20),(21),(25),(26),(31),(38),(43),(44),(51)
104	산철쭉	<i>Rhododendron yedoense</i> f. <i>poukhanense</i> (H.Lév.) M.Sugim. ex T.Yamaz.	Native plant	13	(5),(6),(10),(11),(14),(16),(25),(31),(35),(47),(49),(50),(51)
105	살구나무	<i>Prunus armeniaca</i> var. <i>ansu</i> Maxim.	Cultivated plant	6	(16),(20),(25),(26),(37),(47)
106	삼나무	<i>Cryptomeria japonica</i> (Thunb. ex L.f.) D.Don	Cultivated plant	6	(13),(18),(19),(41),(42),(44)
107	삼지닥나무	<i>Edgeworthia chrysantha</i> Lindl.	Cultivated plant	2	(18),(38)
108	상사화	<i>Lycoris squamigera</i> Maxim.	Cultivated plant	2	(18),(47)
109	상수리나무	<i>Quercus acutissima</i> Carruth.	Native plant	10	(12),(13),(20),(23),(24),(29),(37),(47),(50),(51)
110	새머루	<i>Vitis flexuosa</i> Thunb.	Native plant	1	(46)
111	서양수수꽃다리	<i>Syringa vulgaris</i> L.	Cultivated plant	1	(25)
112	서어나무	<i>Carpinus laxiflora</i> (Siebold & Zucc.) Blume	Native plant	9	(11),(13),(16),(31),(36),(41),(42),(43),(45)
113	서향	<i>Daphne odora</i> Thunb.	Cultivated plant	2	(18),(43)
114	석류나무	<i>Punica granatum</i> L.	Cultivated plant	5	(13),(17),(19),(21),(42)
115	석산	<i>Lycoris radiata</i> (L'Her.) Herb.	Cultivated plant	3	(18),(31),(43)
116	소나무	<i>Pinus densiflora</i> Siebold & Zucc.	Native plant	46	(1),(2),(3),(4),(5),(6),(7),(9),(10),(11),(12),(13),(14),(15),(16),(18),(19),(20),(21),(22),(24),(25),(26),(27),(29),(30),(31),(32),(33),(34),(35),(36),(37),(38),(39),(40),(41),(42),(43),(45),(46),(47),(48),(49),(50),(51)
117	소사나무	<i>Carpinus turczaninowii</i> Hance	Native plant	2	(31),(34)
118	소테나무	<i>Picrasma quassioides</i> (D.Don) Benn.	Native plant	1	(46)
119	솜대	<i>Phyllostachys nigra</i> var. <i>henonis</i> (Bean) Stapf ex Rendle	Native plant	2	(13),(22)
120	송악	<i>Hedera rhombea</i> (Miq.) Siebold & Zucc. ex Bean	Native plant	2	(40),(43)
121	수국	<i>Hydrangea macrophylla</i> (Thunb.) Ser.	Cultivated plant	6	(1),(15),(19),(21),(42),(51)
122	수련	<i>Nymphaea tetragona</i> Georgi	Native plant	1	(1)
123	수선화	<i>Narcissus tazetta</i> var. <i>chinensis</i> Roem.	Cultivated plant	1	(44)
124	수수꽃다리	<i>Syringa oblata</i> var. <i>dilatata</i> (Nakai) Rehder	Native plant	5	(1),(19),(26),(32),(35)
125	취나무	<i>Euodia daniellii</i> Hemsl.	Cultivated plant	1	(16)
126	시무나무	<i>Hemiptelea davidii</i> (Hance) Planch.	Native plant	1	(29)
127	식나무	<i>Aucuba japonica</i> Thunb.	Native plant	2	(13),(42)
128	신이대	<i>Sasa coreana</i> Nakai	Native plant	4	(16),(22),(38),(49)
129	실유카	<i>Yucca filamentosa</i> L.	Cultivated plant	1	(44)
130	실화백	<i>Chamaecyparis pisifera</i> 'Filifera'	Cultivated plant	1	(48)
131	아카시나무	<i>Robinia pseudoacacia</i> L.	Naturalized plant	2	(29),(34)
132	아왜나무	<i>Viburnum odoratissimum</i> var. <i>awabuki</i> (K.Koch) Zabel ex Rümpler	Native plant	2	(16),(42)
133	앵도나무	<i>Prunus tomentosa</i> Thunb.	Cultivated plant	3	(14),(26),(50)
134	야광나무	<i>Crataegus maximowiczii</i> C.K.Schneid.	Native plant	2	(2),(50)
135	어리연꽃	<i>Nymphoides indica</i> (L.) Kuntze	Native plant	2	(2),(7)
136	연꽃	<i>Nelumbo nucifera</i> Gaertn.	Cultivated plant	2	(1),(16)
137	영산홍	<i>Rhododendron indicum</i> (L.) Sweet	Cultivated plant	13	(3),(4),(10),(11),(16),(18),(19),(21),(24),(27),(33),(43),(44)
138	오동나무	<i>Paulownia coreana</i> Uyeki	Native plant	3	(24),(26),(47)
139	오죽	<i>Phyllostachys nigra</i> (Lodd. ex Lindl.) Munro	Cultivated plant	11	(1),(5),(13),(16),(17),(18),(20),(21),(25),(40),(44)
140	옥잠화	<i>Hosta plantaginea</i> (Lam.) Asch.	Cultivated plant	4	(21),(23),(44),(47)
141	올벚나무	<i>Prunus pendula</i> f. <i>ascendens</i> (Makino) Kitam.	Native plant	1	(45)
142	왕대	<i>Phyllostachys bambusoides</i> Siebold & Zucc.	Cultivated plant	2	(13),(20)
143	왕벚나무	<i>Prunus yedoensis</i> Matsum.	Native plant	15	(1),(5),(8),(11),(13),(19),(21),(29),(38),(42),(45),(46),(48),(50),(51)
144	위성류	<i>Tamarix chinensis</i> Lour.	Cultivated plant	1	(24)
145	유카	<i>Yucca gloriosa</i> L.	Cultivated plant	3	(11),(51),(44)
146	은단풍	<i>Acer saccharinum</i> L.	Cultivated plant	1	(51)
147	은목서	<i>Osmanthus x fortunei</i> Carrière	Cultivated plant	4	(11),(13),(38),(42)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Type	Number of species	Number of temples
148	은행나무	<i>Ginkgo biloba</i> L.	Cultivated plant	36	(2),(4),(5),(7),(9),(11),(12),(13),(14),(15),(16),(17),(18),(19),(20),(23),(24),(26),(28),(29),(30),(31),(33),(34),(35),(36),(39),(41),(42),(45),(46),(47),(48),(49),(50),(51)
149	읍나무	<i>Kalopanax septemlobus</i> (Thunb.) Koidz.	Native plant	4	(25),(31),(33),(36)
150	이대	<i>Pseudosasa japonica</i> (Siebold & Zucc. ex Steud.) Makino ex Nakai	Native plant	4	(1),(13),(16),(46)
151	이삭여귀	<i>Persicaria filiformis</i> (Thunb.) Nakai ex Mori	Native plant	1	(47)
152	이팝나무	<i>Chionanthus retusus</i> Lindl. & Paxton	Native plant	2	(40),(44)
153	일본목련	<i>Magnolia obovata</i> Thunb.	Cultivated plant	5	(19),(24),(29),(41),(43)
154	일본오염송	<i>Pinus parviflora</i> var. <i>pentaphylla</i> (Mayr) A.Henry	Introduced plant	1	(33)
155	일본잎갈나무	<i>Larix kaempferi</i> (Lamb.) Carrière	Cultivated plant	2	(24),(31)
156	일월비비추	<i>Hosta capitata</i> (Koidz.) Nakai	Native plant	1	(44)
157	잎갈나무	<i>Larix olgensis</i> var. <i>koreana</i> (Nakai) Nakai	Native plant	1	(3)
158	자귀나무	<i>Albizia julibrissin</i> Durazz.	Native plant	2	(44),(46)
159	자두나무	<i>Prunus salicina</i> Lindl.	Cultivated plant	2	(47)
160	자목련	<i>Magnolia liliiflora</i> Desr.	Cultivated plant	9	(8),(30),(35),(38),(39),(40),(43),(47),(49)
161	작약	<i>Paeonia lactiflora</i> Pall.	Cultivated plant	2	(44),(48)
162	잣나무	<i>Pinus koraiensis</i> Siebold & Zucc.	Native plant	4	(2),(3),(4),(50)
163	전나무	<i>Abies holophylla</i> Maxim.	Native plant	26	(2),(3),(4),(5),(6),(7),(11),(12),(13),(14),(16),(19),(20),(22),(23),(24),(31),(34),(36),(38),(39),(42),(43),(44),(49),(50)
164	조릿대	<i>Sasa borealis</i> (Hack.) Makino	Native plant	1	(34)
165	조팝나무	<i>Spiraea prunifolia</i> f. <i>simpliciflora</i> Nakai	Native plant	1	(21)
166	줄참나무	<i>Quercus serrata</i> Murray	Native plant	7	(15),(23),(24),(28),(30),(33),(42)
167	중가시나무	<i>Quercus glauca</i> Thunb.	Native plant	1	(42)
168	주목	<i>Taxus cuspidata</i> Siebold & Zucc.	Native plant	28	(2),(4),(6),(7),(8),(9),(10),(15),(19),(22),(23),(24),(25),(28),(29),(30),(31),(33),(34),(35),(36),(37),(38),(40),(43),(44),(48),(50)
169	주엽나무	<i>Gleditsia japonica</i> Miq.	Native plant	1	(31)
170	죽순대	<i>Phyllostachys pubescens</i> Mazel	Cultivated plant	2	(18),(44)
171	줄사철나무	<i>Euonymus fortunei</i> var. <i>radicans</i> (Siebold & Miq.) Rehder	Native plant	1	(19)
173	진달래	<i>Rhododendron mucronulatum</i> Turcz.	Native plant	3	(3),(25),(44)
172	쪽동백나무	<i>Styrax obassia</i> Siebold & Zucc.	Native plant	3	(10),(21),(30)
174	찰피나무	<i>Tilia mandshurica</i> Rupr. & Maxim.	Native plant	17	(8),(12),(15),(16),(19),(20),(23),(32),(33),(36),(38),(40),(43),(46),(49),(50),(51)
175	참꽃나무	<i>Rhododendron weyrichii</i> Maxim.	Native plant	1	(40)
176	참식나무	<i>Neolitsea sericea</i> (Blume) Koidz.	Native plant	1	(41)
177	참죽나무	<i>Cedrela sinensis</i> Juss.	Cultivated plant	4	(5),(8),(36),(49)
178	처진개벚나무	<i>Prunus verecunda</i> var. <i>pendula</i> (Nakai) W.T.Lee	Native plant	6	(6),(19),(31),(36),(42),(47)
179	처진소나무	<i>Pinus densiflora</i> f. <i>pendula</i> Mayr	Native plant	4	(19),(39),(42),(49)
180	철쭉	<i>Rhododendron schlippenbachii</i> Maxim.	Native plant	7	(4),(16),(19),(30),(33),(42),(44)
181	측백나무	<i>Thuja orientalis</i> L.	Native plant	7	(15),(19),(20),(25),(31),(42),(49)
182	층층나무	<i>Cornus controversa</i> Hemsl.	Native plant	4	(1),(11),(13),(22)
183	치자나무	<i>Gardenia jasminoides</i> J.Ellis	Cultivated plant	3	(18),(38),(44)
184	칠엽수	<i>Aesculus turbinata</i> Blume	Cultivated plant	2	(7),(29)
185	카이즈카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Kaizuka'	Cultivated plant	2	(47),(13)
186	태산목	<i>Magnolia grandiflora</i> L.	Cultivated plant	1	(38)
187	파초	<i>Musa basjo</i> Siebold & Zucc. ex linuma	Cultivated plant	10	(12),(15),(20),(21),(22),(24),(28),(42),(44),(51)
188	팔손이	<i>Fatsia japonica</i> (Thunb.) Decne. & Planch.	Native plant	1	(42)
189	팔배나무	<i>Sorbus alnifolia</i> (Siebold & Zucc.) C.Koch	Native plant	1	(47)
190	팽나무	<i>Celtis sinensis</i> Pers.	Native plant	9	(16),(18),(20),(21),(39),(41),(43),(44),(47)
191	편백	<i>Chamaecyparis obtusa</i> (Siebold & Zucc.) Endl.	Cultivated plant	4	(18),(22),(42),(48)
192	풀명자	<i>Chaenomeles japonica</i> (Thunb.) Lindl. ex Spach	Native plant	1	(50)
193	피나무	<i>Tilia amurensis</i> Rupr.	Native plant	1	(48)
194	피라칸다	<i>Pyracantha angustifolia</i> (Franch.) C.K.Schneid.	Cultivated plant	1	(44)
195	할리아나꽃사과	<i>Malus halliana</i> Koehne	Cultivated plant	1	(19)
196	합다리나무	<i>Meliosma oldhamii</i> Maxim.	Native plant	1	(47)
197	해당화	<i>Rosa rugosa</i> Thunb.	Native plant	3	(1),(19),(44)

No.	Korean name	Scientific name	Type	Number of species	Number of temples
198	향나무	<i>Juniperus chinensis</i> L.	Native plant	30	(3),(5),(8),(9),(10),(11),(12),(13),(15),(16),(18),(19),(23),(24),(25),(26),(27),(29),(31),(34),(35),(36),(37),(38),(39),(41),(44),(47),(49),(50)
199	헛개나무	<i>Hovenia dulcis</i> Thunb.	Native plant	1	(6)
200	호두나무	<i>Juglans regia</i> L.	Cultivated plant	4	(12),(20),(34),(46)
201	호랑가시나무	<i>Ilex cornuta</i> Lindl. & Paxton	Native plant	4	(13),(16),(38),(40)
202	홍매	<i>Prunus glandulosa</i> f. <i>sinensis</i> (Pers.) Koehne	Cultivated plant	6	(16),(21),(25),(40),(42),(45)
203	황매화	<i>Kerria japonica</i> (L.) DC.	Native plant	1	(31)
204	황칠나무	<i>Dendropanax morbiferus</i> H.Lév.	Native plant	1	(38)
205	회양목	<i>Buxus koreana</i> Nakai ex Chung & al.	Native plant	15	(7),(9),(15),(19),(21),(28),(31),(33),(35),(37),(43),(44),(46),(50),(51)
206	회화나무	<i>Sophora japonica</i> L.	Cultivated plant	9	(13),(14),(16),(19),(20),(32),(33),(40),(46)
207	흰동백나무	<i>Camellia japonica</i> f. <i>albipetala</i> H.D.Chang	Native plant	1	(21)